

Ⅰ 최신산업간호연구동향 Ⅰ

## 한 대학병원 간호사의 근골격계질환 증상유병율과 관련요인

배은경 / 가톨릭대학교 보건대학원 산업보건간호학 전공

본 연구는 한 대학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각 부위별 증상유병율을 파악하고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측정 도구를 이용하여 근골격계 증상유병율과 관련요인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2006년 4월 10일부터 24일 까지 경기도에 소재한 C대학 부속 병원에 종사하는 임상간호사 전수를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353명의 자료를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분석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NIOSH 정의에 의한 증상유병율은 어깨(58.4%), 등/허리(53.5%), 다리/무릎/발목/발(50.7%), 목(49.9%), 팔/손목/손가락(31.4%) 순으로 나타났으며 NIOSH 정의에 의한 어느 한 부위라도 증상이 있는 경우는 73.4%이었다.
2. 대상자의 각 특성에 따른 근골격계 증상유병율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는 목 부위에서는 BMI, 상사의 지지, 직장 문화에 대한 직무스트레스로 나타났으며, 어깨 부위에서는 상사의 지지 이었다.
3.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에 의한 신체 부위별 근골격계 증상유병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목 부위에서는 저체중일 때 3.41배, 상사의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0.62배 이었다. 어깨 부위에서는 저체중일 때 2.04배, 상사의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0.61배 이었으며, 팔/손목/손가락 부위에서 증상유병율은 저체중일 때 2.00배, 운동을 안할 경우 1.96배 더 높았으며 관계만족에 대한 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1.02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등/허리 부위에서는 저체중일 때 2.83배, 물리환경에 대한 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1.02배 이었다. 다리/무릎/발목/발 부위의 근골격계 증상유병율은 저체중일 때 2.62배, 특수 부서에서 근무하는 경우 1.90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NIOSH의 정의에 의한 어느 한 부위라도 증상이 있는 경우 근골격계 증상유병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BMI, 운동여부, 상사의지지, 물리환경, 직무자율, 조직체계 이었다.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한 결과 저체중일 때 2.81배, 상사의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0.51배 이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대상자의 각 신체 부위에 따라 근골격계 증상유병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다르고 상사의지지, 직무스트레스 또한 근골격계 증상유병율과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근골격계질환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간공학적 측면과 더불어 직무스트레스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지며 이러한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여 분석 조정하고 예방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발생 및 재발 방지를 위해서 힘을 기울여야겠다.

